

마태복음 14:22 – 14:33 물위를 걸으시다

22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23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24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25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26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27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28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29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30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 때에 그는 "주님, 살려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31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32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33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물위를 걸으시는 대목은 빵 다섯덩어리와 물고기 두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신 사건 다음에 이어서 등장합니다. 오천명을 먹이신 이후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 이유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요한복음 6 장 15 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22 절에서 제자들을 '~가게 하시고' 라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라는 의미가 담긴 아주 강한 어조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분위기에서 제자들을 피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벳세다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가버나움은 벳세다에서 서쪽에 있는데,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다고 해서 정 반대쪽인 갈릴리 호수 남쪽으로 간 것이 아니고 가버나움에서 약간 더 서쪽에 있는 게네사렛 (34 절) 으로 갔습니다.
-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는 장면을 사복음서가 많이 적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단 두 군데에서 기록합니다. 14 장 23 절과 겹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마태 26 장 36-46) 입니다.

-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말하신다고 하신 요한복음 8 장 28 절의 말씀을 기억하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 생활의 좋은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 25 절에서 새번역 성경은 '이른 새벽' 이라고 적지만, 개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밤 사경 또는 제 사시 라고 적고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시간은 저녁시간부터 이른 새벽 시간을 사등분하였는데, 오후 6 시부터 밤 9 시까지, 그 다음이 자정까지, 새벽 세시까지 그리고 여섯시까지 입니다. 그래서 제 사시는 새벽 3 시에서 6 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 반면에 유대인들은 다른 시간을 사용했는데 사등분이 아니라 삼등분 했습니다. 해질때부터 밤 10 시까지, 10 시부터 새벽 두시까지, 그리고 두시부터 해뜰때까지 입니다.
- 27 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출애굽기 3 장 14 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라고 하신 말씀을 연상시키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으로써, 제자들을 안심 시키시는 예수님의 존재감이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 28 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로도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깊은 신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제로 물위를 걸은 것은 이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 배안에는 베드로를 포함한 열두 사도들이 다 있었지만, 배 밖으로 나와서 물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 밖에 없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거센 바람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면서 물속으로 빠지게 되었지만, 그는 물위를 걸어본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 물위를 걷기전에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고 거센 바람을 의식하면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 살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의 시선이 다시 예수님께로 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31 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말씀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미신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가 '곧' (영어로는 immediately) 입니다. 베드로가 구해 달라고 소리쳤을 때에 예수님은 지체없이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사람' 이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에서는 꾸중하시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 32 절에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바람이 그칩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란 호칭이 사용된 유일한 대목입니다.